

“선과 악의 과보는 메아리 같은 것”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5)

두 장사꾼

사위국에 두 장사꾼이 있었다. 한 사람이 생각했다.

“부처님의 몸은 한 길 여섯 자로서 빛이 나고, 정수리에는 육계(肉髻)가 있고, 목덜미에는 일광(日光)을 지고 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시다. 부처님은 마치 제왕 같고, 사문은 마치 충신 같다. 부처님께서 밝은 법을 설하시면 사문은 그 법을 외워 널리 퍼니, 부처님께서 가히 밝으시고 높은 어른이시다.”

부처님께서 그의 뜻을 아시고 그를 자세히 보시니,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이 즐거운 것이 마치 보배를 얻은 것과 같았다.

또 한 장사꾼이 생각했다.

“부처님이란 마치 소와 같고, 제자는 마치 수레와 같다. 그 소가 수레를 동서남북으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러하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나쁜 생각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앙을 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이 나쁜 것을 가없이 여기셨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30리쯤 이르러 정자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술을 사서 마시다가 일 때문에 서로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다. 착한 생각을 지닌 이에겐 사천왕이 선신을 보내어 보호했고, 나쁜 생각을 지닌 이에겐 태산의 귀신을 술과 함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니 마치 불로 몸을 태우는 것 같았으므로 정자에서 나와 밖에서 누워 뒹굴다가 수레바퀴 자국 안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새벽에 어떤 장사꾼들이 수레를 5백이나 끌고 지나가면서 그를 치어 죽게 했다. 벗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낭패구나. 나라로 돌아간들 의심을 사서 물건을 몰수당할 것이고, 이름은 의롭지 않게 되겠다.”

마침내 그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떠났다. 사위국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 국왕이 죽고 태자가 없었는데, 참서(讖書)에 이르기를 “장차 미천한 장사꾼이 국도의 왕이 되리라.”고 했다.

어느 날, 신하들이 모여 의논했다.

“나라에 임금 없는 것은 몸에 머리가 없는 것과 같다.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될 일이다. 본디 왕에게 말(馬)이 있었는데 항상 왕에게는 절을 했으므로, 만약 왕이 될 만한 이가 있다면 말이 반드시 절을 할 것이요.”

곧 신하들이 말을 데리고 거리로 나오자 사람들이 길을 떴었다. 이때 장사꾼도 나가서 구경을 했는데, 신령스런 말이 곧장 그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할퀴었다. 여러 신하들은 기뻐하면서

그를 국왕으로 임명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장사꾼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정사를 보살피게 되었는데, 스스로 깊이 생각했다.

“나에게는 조그마한 선(善)조차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까? 이는 반드시 부처님의 은혜일 것이다.”

그리하여 아침에 어좌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신하들과 함께 사위국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미천한 사람이 세존의 은덕을 입어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국토는 아직 부처님을 모르니, 이 나라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내일 응진 성인들과 함께 왕림하시어 석 달 동안만이라도 계셔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에게 명하라. 내일 그 왕의 청대로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수레가 바퀴 자국을 따르는 것 같다. //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다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악의 죄에서 가장 무거운 다섯 가지가 있다. 불효불충으로 아버이를 죽이고, 임금을 죽여 집이 멸망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짐이 중한 죄에서 첫째이다. 이러한 행으로 공(功)과 소원 없음(不願)과 생각 없음(無想)의 선정을 얻어서 부처님과 뜻이 같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를 해치는 것이 무거운 죄 중에서 둘째이다. 부처님께서 온갖 허물이 이미 없어졌고 큰 복이 모여 이루어졌으며, 상호와 10력과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며, 자(慈), 비(悲), 희(喜), 호(護)의 마음은 인자한 어머니보다 더한데, 어리석게도 부처님을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셋째이다. 맑고 깨끗한 사문은 뜻이 고요하고 행이 높으며 경법을 품어 안고서 부처님을 도와 어리석은 이를 교화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서로가 있고 중생이 제도되는 것은 모두가 대승 승가로 말미암은 것인데, 비구를 괴롭히는 것이 중한 죄에서 넷째이다. 부처님의 높은 신심을 탐모의 보물과 수도는 중생들의 정성된 마음으로 3존께 바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험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다섯째이다. 이 다섯 가지를 범하면 죄의 사람을 청할 것도 없으니 부디 범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자, 왕과 여러 신하들은 모두가 수다원을 얻었으며, 백성들 중엔 사문이 된 이도 있었고, 마침내 5계와 10선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니, 여러 하늘들이 도와서 나라는 흥성하게 되었다. (백예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모두가 변화하여 거룩하고 높은 덕을 나타내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게 하여라.”

다음 날, 부처님과 응진들이 정전에 앉으시자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었다.

“저는 본래 미천한 사람이라 업이 훌륭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왕이 장사꾼이었을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 그대의 생각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왕과 같고 사문은 신하와 같구나.’ 했었습니다. 왕께서는 모종을 심어 열매를 거두는 사람처럼 그때 가졌던 바른 마음의 공덕이 왕이 될 모종이 된 것이고, 이제 공덕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다른 장사꾼은 ‘부처님은 소와 같고 제자들은 수레와 같다.’ 고 했던

생각이 수레에 치어 죽을 모종이 되어 태산에서 불의 수레에 깔려 죽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각자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 복이 따르고, 악행을 하면 화가 좇는다. 메아리에 소리가 응하듯 선과 악은 음성과 같으니, 하늘, 용, 귀신이 준 것도 아니고 선조가 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은 것은 마음이고, 이루는 것은 몸과 입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수레가 바퀴 자국을 따르는 것 같다. //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다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악의 죄에서 가장 무거운 다섯 가지가 있다. 불효불충으로 아버이를 죽이고, 임금을 죽여 집이 멸망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짐이 중한 죄에서 첫째이다. 이러한 행으로 공(功)과 소원 없음(不願)과 생각 없음(無想)의 선정을 얻어서 부처님과 뜻이 같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를 해치는 것이 무거운 죄 중에서 둘째이다. 부처님께서 온갖 허물이 이미 없어졌고 큰 복이 모여 이루어졌으며, 상호와 10력과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며, 자(慈), 비(悲), 희(喜), 호(護)의 마음은 인자한 어머니보다 더한데, 어리석게도 부처님을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셋째이다. 맑고 깨끗한 사문은 뜻이 고요하고 행이 높으며 경법을 품어 안고서 부처님을 도와 어리석은 이를 교화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서로가 있고 중생이 제도되는 것은 모두가 대승 승가로 말미암은 것인데, 비구를 괴롭히는 것이 중한 죄에서 넷째이다. 부처님의 높은 신심을 탐모의 보물과 수도는 중생들의 정성된 마음으로 3존께 바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험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다섯째이다. 이 다섯 가지를 범하면 죄의 사람을 청할 것도 없으니 부디 범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자, 왕과 여러 신하들은 모두가 수다원을 얻었으며, 백성들 중엔 사문이 된 이도 있었고, 마침내 5계와 10선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니, 여러 하늘들이 도와서 나라는 흥성하게 되었다. (백예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모두가 변화하여 거룩하고 높은 덕을 나타내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게 하여라.”

다음 날, 부처님과 응진들이 정전에 앉으시자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었다.

“저는 본래 미천한 사람이라 업이 훌륭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왕이 장사꾼이었을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 그대의 생각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왕과 같고 사문은 신하와 같구나.’ 했었습니다. 왕께서는 모종을 심어 열매를 거두는 사람처럼 그때 가졌던 바른 마음의 공덕이 왕이 될 모종이 된 것이고, 이제 공덕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다른 장사꾼은 ‘부처님은 소와 같고 제자들은 수레와 같다.’ 고 했던

생각이 수레에 치어 죽을 모종이 되어 태산에서 불의 수레에 깔려 죽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각자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 복이 따르고, 악행을 하면 화가 좇는다. 메아리에 소리가 응하듯 선과 악은 음성과 같으니, 하늘, 용, 귀신이 준 것도 아니고 선조가 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은 것은 마음이고, 이루는 것은 몸과 입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수레가 바퀴 자국을 따르는 것 같다. //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다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악의 죄에서 가장 무거운 다섯 가지가 있다. 불효불충으로 아버이를 죽이고, 임금을 죽여 집이 멸망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짐이 중한 죄에서 첫째이다. 이러한 행으로 공(功)과 소원 없음(不願)과 생각 없음(無想)의 선정을 얻어서 부처님과 뜻이 같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를 해치는 것이 무거운 죄 중에서 둘째이다. 부처님께서 온갖 허물이 이미 없어졌고 큰 복이 모여 이루어졌으며, 상호와 10력과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며, 자(慈), 비(悲), 희(喜), 호(護)의 마음은 인자한 어머니보다 더한데, 어리석게도 부처님을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셋째이다. 맑고 깨끗한 사문은 뜻이 고요하고 행이 높으며 경법을 품어 안고서 부처님을 도와 어리석은 이를 교화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서로가 있고 중생이 제도되는 것은 모두가 대승 승가로 말미암은 것인데, 비구를 괴롭히는 것이 중한 죄에서 넷째이다. 부처님의 높은 신심을 탐모의 보물과 수도는 중생들의 정성된 마음으로 3존께 바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험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다섯째이다. 이 다섯 가지를 범하면 죄의 사람을 청할 것도 없으니 부디 범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자, 왕과 여러 신하들은 모두가 수다원을 얻었으며, 백성들 중엔 사문이 된 이도 있었고, 마침내 5계와 10선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니, 여러 하늘들이 도와서 나라는 흥성하게 되었다. (백예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모두가 변화하여 거룩하고 높은 덕을 나타내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게 하여라.”

다음 날, 부처님과 응진들이 정전에 앉으시자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었다.

“저는 본래 미천한 사람이라 업이 훌륭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45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일타 스님 법문

오늘 지인의 49제에 갔었다. 지극한 장엄염불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함께 축원했다. 공양을 마친 후 영가의 가족은 책과 타올을 봉투에 담아 손님들에게 선물했다.

책은 일타 스님이 지은 광명진언이었다. 스님은 생전에 우리 연꽃모임회원들의 지도 법사였다. 항상 웃는 얼굴과 인자하신 목소리로 법문을 주셨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스님이 가신지도 여인 13년이란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생전의 법문만은 가슴에 남아있다. 오늘, 스님의 책을 보니 다시금 스님을 만나 뵙는 듯 반가웠다. 첫 페이지부터 스님의 음성을 듣는 듯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일은 없었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훌륭한 내생을 만들자

가진 것 없이도 가슴 깊이 감사함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묘법

그래서 옛 성현들은 죽음을 웃 갈아입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웃을 오래입어 넣었으니 새 웃으로 갈아입어야겠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생전에 들었던 법문이지만 책으로 다시 보니 스님을 뵙는 듯 새롭게 다가왔다. 스님이 그러했다. 지금 나는 새삼스럽게도 스님의 글속에서 생전의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만나보고 있는 느낌이다. 가섯어도 가신 것이 아니리라.

책은 영가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있는데, 스님은 책에서 본인이 살아생전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 염불 등의 수행을 하게 되면 미혹에 휩싸이지 않아 스스로 태어나야 할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타력의 천도제는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처럼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니 망자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염불과 법문으로 마음을 밝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하셨다.

누구나 절에서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법한 법문이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깨워 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깨달음이란 구하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것임을 상기하여 이미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스님께 감사하며 합장 했다. 저녁 찬이 걱정 될 때 고민 말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집으로 가서 한 끼를 먹어보면 내가 즐겨먹던 음식을 그 집 밥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가슴마다 숨어있는 신심의 법문도 내가 아닌 누구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심견고(信心堅固)의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생전에 스스로 예수재를 실천하여 타력이 아닌 자력으로 훌륭한 내생을 만들 수 있기를 서원하며 정진해야 하겠다.

진정한 사랑

우연히 보게 된 TV의 한 장면이 마음에 쏙힌다. 아주 깊고 높은 산속에 전기도 없는 외딴집에서 부부가 살고 있다. 그 부부는 그 동안 해오던 사업의 실패로 그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백년도 더 된 집인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된 지도 벌써 20년이나 된다고 했다.

그리고 부부는 이곳에서 네 자녀를 낳아 키웠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인의 모습은 평범한 주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도시의 어느 부인이나 다를 바 없는 품위 있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런 여건에서는 더 잘 할래야 더 잘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편하여 계속 보게 되었다.

얼마나 정성이 지극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꼭 한번 불러 주고 싶다.”고 하셨단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애뜻함과 감동으로 가슴 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말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이 말을 했다면 이만큼 감동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해 주신 마지막 말이라니 참으로 고맙고 귀이한 선물이 아닌가 싶다.

그 깊은 숲속의 삶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로선 이해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힘들었을 상황인데도 천사와 같은 밝은 얼굴로 불만 없이 살며,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한 모습으로 잘 적응하고 가슴으로 안아주며 사랑으로 채워 살고 있음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하고 산다. 그런데 가시고 안 계신 시어머니를 이처럼 그리워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큰 법문이 아닐 수 없다.

가진 것 없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가슴깊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고, 그 고귀한 사랑은 묘법(妙法)의 세계일 것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ong.co.kr /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